

『素問』王氷註 中 『鍼經』 引用에 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 한의학전문대학원²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³

송지청¹ · 심현아^{1, 2} · 금경수^{1, 3} · 임동명^{1, 3*}

A Review on quotations of 『Zhenjing』 in 『Suwen』 annotated by Wangbing

Eom Dong-myung^{1, 3} · Sim Hyuna^{1, 2} · Keum Kyung-soo^{1, 3} · Song Ji-chung^{1*}

¹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 : In 『Suwen』 annotated by Wangbing at Tang dynasty of China, there are many books that he quoted. 『Zhenjing』 is one of them. 『Zhenjing』 has been known as another name of 『Lingshu』. However, in Wangbing's annotations, 『Zhenjing』 and 『Lingshu』 are shown as quotation books.

Method : 『Zhenjing』 and 『Lingshu』 are compared.

Result : 2 quotations of 『Zhenjing』 out of 32 quotations are from 『Suwen』 instead of 『Lingshu』, 3 quotations are not related with 『Lingshu』, 3 quotations are similar with 『Lingshu』 and rest of them could be from 『Lingshu』.

Conclusion : It is supposed that several types of 『Lingshu』 could be existed when Wangbing wrote annotated 『Suwen』.

Key Words : 『Suwen』, 『Zhenjing』, 『Lingshu』, 『Neijing』, quotation, Wangbing

I. 序論

王氷은 당나라 사람으로 號는 啓玄子이며, 太僕令이라는 벼슬을 지내 王太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는 『素問』을 정리하고 본문 전체를 註釋한 이후 『黃帝內經』을 연구하는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 교신저자 : 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원전학교실
E-mail: haksan@wku.ac.kr
Tel: 063-850-5946 Fax: 063-842-4328
접수일(2011년 2월 27일), 수정일(2011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2011년 3월 21일)

王氷이 후대에 끼친 영향에 비해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기존 연구로 金基郁은 王氷 주석을 통한 운기학설에 대한 연구¹⁾와 楊上善과 王氷 註釋의 比較 고찰²⁾, 金南一은 王氷의 生涯와 의학 사상에 대한 연구³⁾, 王氷 사상의 역학적 활용에 대한

- 1) 金基郁, 朴炫局. 『黃帝內經素問·七篇大論』 王氷 主本을 통한 運氣學說 關한 研究. 東國韓醫大研究所論文集. 4. 1995.
- 2) 金基郁, 朴炫局. 楊上善과 王氷 註釋의 比較論의인 研究 (I).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4(1). 2001.
金基郁, 朴炫局. 楊上善과 王氷 註釋을 통한 醫學理論의 比較論의인 研究 (II).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4(2). 2001.
- 3) 金南一. 王氷의 생애와 그 의학사상의 특징. 韓國醫史學會誌. 15(1). 2002.

연구⁴⁾가 있다. 金重漢은 王氷의 註釋에 대한 내용분석 및 王氷이 篇第를 改編한 내용을 中心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王氷이 『素問』을 註解하는데 언급된 서적과 인물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⁵⁾.

기존의 연구를 통해 王氷이 『素問』을 註解하는데 참고로 한 서적으로 『靈樞經』과 『鍼經』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靈樞』는 『九墟』, 『九卷』, 『九靈』과 더불어 『鍼經』으로도 불려서 『鍼經』은 『靈樞』와 같은 서적으로 看做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王氷은 『素問』을 註解하면서 『靈樞』와 『鍼經』을 별도로 인용하고 있다.

이용범은 「『靈樞』의 書誌學的 考察」⁶⁾에서 『靈樞』의 異名과 書誌에 관해 밝혔으나 王氷註에서 인용한 『靈樞』나 『鍼經』의 關聯性を 그 내용을 통해 직접 연구하지는 않았다. 또한 眞柳誠은 「『靈樞』는 高麗政府所藏本 『鍼經』に基づく」⁷⁾에서 『鍼經』의 유래를 밝히고 있는데, 『素問』의 註釋 내용에 언급된 『鍼經』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鍼經』이 『靈樞』라는 가정 아래 王氷이 인용한 『鍼經』 문장을 『靈樞』 문장과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鍼經』이 『靈樞』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王氷이 『鍼經』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힌 文章을 『靈樞』와 比較한 후 校勘과 考察을 통해 『鍼經』과 『靈樞』의 相關性を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素問·診要經終論』

鍼經曰 刺之氣不至 無問其數 刺之氣至 去之勿復鍼⁸⁾

【校勘】

『靈樞·九鍼十二原』에는 ‘刺之’ 다음에 ‘而’가 있으며, ‘去之’ 앞에 ‘乃’가 있다.

【考察】

『素問·診要經終論』의 ‘刺之不愈復刺’에 대한 註로 『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이다⁹⁾. ‘而’字와 ‘乃’字를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2. 『素問·寶命全形論』

鍼經曰 一其形 聽其動靜 而知邪正¹⁰⁾

【校勘】

『靈樞·九鍼十二原』에는 ‘邪正’ 앞에 ‘而’字 없으며 ‘知’字 다음에 ‘其’字가 더 있다.

【考察】

『素問·寶命全形論』의 ‘手動若務 鍼耀而勻’에 대한 註로 『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이다¹¹⁾. ‘而’字를 첨가하고, ‘其’字를 생략하였다.

3. 『素問·離合眞邪論』

鍼經云 寫曰迎之 迎之意 必持而內之 放而出之 排陽出鍼 疾氣得泄 補曰隨之 隨之意 若忘之 若行若悔 如蚊蟲止 如留如還¹²⁾

4) 金南一. 王氷의 陰陽五行理論의 易學的 활용에 대한 연구. 15(1). 2002.

5) 金重漢, 洪元植. 王氷에 對한 研究 -王氷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慶熙韓醫大論文集. 4(1). 1981.

6) 이용범. 『靈樞』의 書誌學的 考察. 大韓原典醫學會誌. 12(2). 1999.

7) 眞柳誠. 『靈樞』는 高麗政府所藏本 『鍼經』に基づく. 韓國醫史學會誌. 16(2). 2003. 참고로 이 논문은 같은 학회지 pp.158~162.에 「『靈樞』와 高麗에 있던 『鍼經』의 比較연구」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다.

8)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07.

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2.

10)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84.

1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2.

【校勘】

『靈樞·九鍼十二原』에는 ‘迎之迎之意’가 없으며, ‘必持’ 뒤에 ‘而’字가 없다. ‘排陽出針’의 ‘出’은 ‘得’으로 되어 있으며, ‘疾氣’는 ‘邪氣’로 되어 있고 뒤에 ‘按而引鍼 是謂內溫 血不得散 氣不得出也’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若梅’는 ‘若按’으로 되어 있다.

【考察】

『素問·離合眞邪論』의 ‘吸則內鍼無令氣忤 靜以久留 無令邪布 吸則轉鍼 以得氣爲故 候呼引鍼 呼盡乃去 大氣皆出 故命曰寫’에 대한 註로 『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이다¹³⁾. ‘迎之 迎之意’는 王氷이 삽입하였으나 뒤의 ‘補日 隨之 隨之意’와 비교해 보면 對句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4. 『素問·離合眞邪論』

鍼經曰 刺之而氣不至 無問其數 刺之氣至 去之勿復鍼¹⁴⁾

【考察】

『素問·離合眞邪論』의 ‘呼盡內鍼 靜以久留 以氣至爲故’에 대한 註로 『素問·診要經終論』의 ‘刺之不愈復刺’에 대한 註와 동일하다.

5. 『素問·離合眞邪論』과 『素問·鍼解』

鍼經曰 經氣已至 慎守勿失¹⁵⁾

【考察】

이는 『素問·離合眞邪論』의 ‘其氣以至 適而自護’에 대한 註인데, 『鍼經』을 引用處로 밝히고 있으나 『素問·寶命全形論』의 文章¹⁶⁾이다. 한편 『靈樞·小鍼解』의

‘針而得氣 密意守氣勿失也’라는 文章¹⁷⁾과도 類似한데, 이는 『靈樞·小鍼解』가 많은 부분에서 『素問·鍼解』의 주석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靈樞』를 出典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素問·刺要論』

鍼經曰 凡刺有五 以應五藏 一曰半刺 半刺者 淺內而疾發鍼 令鍼傷多 如拔髮狀 以取皮氣 此肺之應氣也¹⁸⁾

【校勘】

『靈樞·官鍼』에는 ‘令鍼傷多’가 ‘無鍼傷肉’으로 되어 있고, ‘應’字 다음에 ‘氣’字가 없다.

【考察】

『素問·刺要論』의 ‘是故刺毫毛腠理無傷皮 皮傷則內動肺 肺動則秋病溫瘧 沍沍然寒慄’에 대한 註로 『靈樞·官鍼』의 文章이다¹⁹⁾. ‘無鍼傷肉’을 ‘令鍼傷多’으로 바꾸었는데, 意味上 ‘無鍼傷肉’이 맞다.

7. 『素問·刺要論』

鍼經曰 熱則筋緩 故筋傷則動肝²⁰⁾

【考察】

『素問·刺要論』의 ‘刺骨無傷髓 髓傷則銷鑠胠酸 體解 依然不去矣’에 대한 註이며, 『靈樞』에는 동일한 文章을 찾아볼 수 없다.

8. 『素問·刺要論』

鍼經曰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胠酸眩冒²¹⁾

12)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1.

1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1.

14)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1.

15)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92.

1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98.

1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32.

18)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301-302.

1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63.

20)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02.

21)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02.

【校勘】

『靈樞·海論』에는 ‘酸’字가 ‘痠’字로 되어 있다.

【考察】

『素問·刺要論』의 ‘刺骨無傷髓 髓傷則銷鑠胎酸 體解 依然不去矣’에 대한 註로 『靈樞·海論』의 文章이다²²⁾.

9. 『素問·離合眞邪論』과 『素問·鍼解』

鍼經曰 經氣已至 慎守勿失²³⁾

【考察】

『素問·鍼解』의 ‘爲虛與實者 工勿失其法’에 대한 註인데, 『鍼經』을 引用處로 밝히고 있으나 『素問·鍼解』의 文章²⁴⁾이다. 한편 『靈樞·小鍼解』의 ‘針而得氣 密意守氣勿失也’라는 文章²⁵⁾과도 類似한데, 이는 『靈樞·小鍼解』가 많은 부분에서 『素問·鍼解』의 주석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靈樞』를 출전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0. 『素問·鍼解』

鍼經曰 無實實 無虛虛²⁶⁾

【考察】

『素問·鍼解』의 ‘若得若失者 離其法也’에 대한 註인데 『鍼經』을 引用處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素問·五常政大論』에 ‘無盛盛 無虛虛’²⁷⁾이라는 文章과 좀 더 비슷하다. 하지만 『靈樞』에는 이와 동일한 文章을 찾아볼 수 없다.

11. 『素問·鍼解』

鍼經曰 謹候其氣之所在而刺之 是謂逢時²⁸⁾

【考察】

『靈樞·衛氣行』에는 ‘謹候’ 다음에 ‘其’字가 없다.

【考察】

『素問·鍼解』의 ‘補瀉之時者 與氣開闔相合也’에 대한 註로 『靈樞·衛氣行』의 文章이다²⁹⁾.

12. 『素問·鍼解』

鍼經曰 持鍼之道 堅者爲實³⁰⁾

【考察】

『靈樞·九鍼十二原』에는 ‘實’字가 ‘寘’字로 되어 있다.

【考察】

『素問·鍼解』의 ‘手如握虎者 欲其壯也’에 대한 註로 『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이다³¹⁾.

13. 『素問·長刺節論』

鍼經曰 1)病淺鍼深 內傷良肉 皮膚爲癰 又曰 2)鍼太深則 邪氣反沈 病益甚³²⁾

【考察】

2) 『靈樞·九鍼十二原』에는 ‘甚’이 없다.

2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74.
23)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11.
2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93.
2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32.
26)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11.
2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258.

28)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11.
2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338.
30)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13.
3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1.
32)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17.

【考察】

『素問·長刺節論』의 ‘無傷筋骨 傷筋骨 癰發若變’에 대한 註로, 1)은 『靈樞·官鍼』의 文章이며³³⁾, 2)는 『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이다³⁴⁾.

14. 『素問·皮部論』

鍼經曰 寒則筋急 熱則筋緩 寒勝爲痛 熱勝爲氣消 胛者肉之標 故肉消 則胛破 毛直而敗也³⁵⁾

【考察】

『素問·皮部論』의 ‘其留於筋骨之間 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筋弛骨消 肉燦胛破 毛直而敗’에 대한 註이다. 그러나 『靈樞』에는 이와 동일한 文章을 찾아볼 수 없다.

15. 『素問·氣穴論』

鍼經所謂刺之則去 不能欠者也³⁶⁾

【考察】

『素問·氣穴論』은 ‘上關二穴’에 대한 註로 『靈樞·本輸』의 ‘上關者 去不能欠 刺下關者 欠不能去’라는 文章³⁷⁾과 의미가 비슷하다. 그러나 『靈樞』에는 이와 동일한 文章을 찾아볼 수 없다.

16. 『素問·氣穴論』

鍼經所謂刺之則欠 不能去者也³⁸⁾

【考察】

『素問·氣穴論』의 ‘下關二穴’에 대한 註로 『靈樞·本輸』의 ‘上關者 去不能欠 刺下關者 欠不能去’라는 文章³⁹⁾과 의미가 비슷하다. 그러나 『靈樞』에는 이와 동일한 文章을 찾아볼 수 없다.

17. 『素問·氣穴論』

鍼經曰 1)迎之五里 中道而止 五至而已 五注而藏之氣盡矣 故五五二十五 而竭其氣矣…… 又曰 2)五里者 尺澤之後五里⁴⁰⁾

【考察】

『素問·氣穴論』의 ‘大禁二十五 在天府下五寸’에 대한 註로, 1)은 『靈樞·玉版』의 文章인데⁴¹⁾, 2)는 『靈樞』에 이와 동일한 文章을 찾아볼 수 없다.

18. 『素問·骨空論』

鍼經曰 1)衝脈者 十二經之海 與少陰之絡 起於腎下 出於氣街 又曰 2)衝脈任脈者 皆起於胞中 上循脊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各行 會於咽喉 別而絡唇口 血氣盛則皮膚熱 血獨盛則滲灌皮膚 生毫毛⁴²⁾

【校勘】

2) 『靈樞·五音五味』에는 ‘脊裏’가 ‘背裏’로 되어 있으며 ‘各行’은 ‘右上行’으로 되어 있다. ‘皮膚熱’ 뒤에 ‘肉’字이 더 있다.

【考察】

『素問·骨空論』의 ‘依齊上行 至胸中而散’에 대한 註로 1)은 『靈樞·動腧』의 文章이고⁴³⁾, 2)는 『靈樞·五音五味』의 文章이다⁴⁴⁾.

3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62.

3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2.

35)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21.

36)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29.

3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22.

38)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29.

3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22.

40)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33.

4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261.

42)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53.

4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267.

19. 『素問·調經論』

鍼經曰 1)兩神相薄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 …… 鍼經曰 2)所謂節之交三百六十五會 皆神氣出入遊行之所 非骨節也⁴⁵⁾

【校勘】

2) 『靈樞·九鍼十二原』에는 ‘五會’ 뒤에 ‘知其要者一言而終 不知其要 流散無窮 所言節者’가 생략되어 있으며, ‘皆神氣出入遊行之所 非骨節也’는 ‘神氣之所遊行出入也 非皮肉筋骨也’로 되어 있다.

【考察】

『素問·調經論』의 ‘帝曰 人有精氣津液 四肢九竅 五藏十六部 三百六十五節 乃生百病 百病之生 皆有虛實 今夫子乃言有餘有五 不足亦有五 何以生之乎’에 대한 註로 1)은 『靈樞·決氣』의 文章이고⁴⁶⁾, 2)는 『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이다⁴⁷⁾. 그런데 『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 “神氣之所遊行出入也 非皮肉筋骨也”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皆神氣出入遊行之所 非骨節也’로 바꾸어 인용하였고 그 앞의 文章을 생략하였다.

20. 『素問·調經論』

鍼經曰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也⁴⁸⁾

【校勘】

『靈樞·本神』에는 ‘也’字이 없다.

【考察】

『素問·調經論』의 ‘神有餘則笑不休 神不足則悲’에 대한 註로 『靈樞·本神』의 文章이다⁴⁹⁾.

4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282.

45)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67.

4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68.

4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2.

48)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68.

21. 『素問·調經論』

鍼經曰 經脈爲裏 支而橫者爲絡 絡之別者爲孫⁵⁰⁾

【考察】

『素問·調經論』의 ‘帝曰 補瀉奈何 岐伯曰 神有餘則瀉其小絡之血 出血勿之深斥 無中其大經 神氣乃平’에 대한 註로 『靈樞·脈度』의 文章이다⁵¹⁾.

22. 『素問·調經論』

鍼經曰 肺氣虛則鼻息利少氣 實則喘喝 胸憑仰息也⁵²⁾

【校勘】

『靈樞·本神』에는 ‘鼻息利少氣’가 ‘鼻塞不利少氣’로 되어 있으며, ‘胸憑’은 ‘胸盈’으로 되어 있다. ‘也’字는 없다.

【考察】

『素問·調經論』의 ‘氣有餘則喘欬上氣 不足則息利少氣’에 대한 註로 『靈樞·本神』의 文章이다⁵³⁾. ‘不利’와 ‘胸盈’이 각각 ‘利’와 ‘胸憑’으로 바뀌어 있다.

23. 『素問·調經論』

鍼經曰 肝藏血 肝氣虛則恐 實則怒⁵⁴⁾

【校勘】

『靈樞·本神』에는 ‘肝藏血’ 다음에 ‘血舍魂’가 더 있다.

4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69.

50)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68.

5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15.

52)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69.

5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69.

54)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70.

【考察】

『素問·調經論』의 ‘血有餘則怒 不足則恐’에 대한 註로 『靈樞·本神』의 文章이다⁵⁵⁾.

24. 『素問·調經論』

鍼經曰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藏不安 實則腹脹 溼漉不利⁵⁶⁾

【考察】

『素問·調經論』의 ‘形有餘則腹脹 溼漉不利 不足則四肢不用’에 대한 註로 『靈樞·本神』의 文章이다⁵⁷⁾.

25. 『素問·調經論』

鍼經曰 腎藏精 精含志 腎氣虛則厥 實則脹⁵⁸⁾

【考察】

『素問·調經論』의 ‘志有餘則腹脹 飧泄 不足則厥’에 대한 註로 『靈樞·本神』의 文章이다⁵⁹⁾.

26. 『素問·調經論』

鍼經曰 追而濟之 安得無實⁶⁰⁾

【校勘】

『靈樞·九鍼十二原』에는 ‘安’字が ‘惡’字로 되어 있다.

【考察】

『素問·調經論』의 ‘近氣不失 遠氣乃來 是謂追之’에 대한 註로 『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이다⁶¹⁾.

5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69.

56)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70.

5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69.

58)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71.

5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69.

60)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75.

6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1.

27. 『素問·繆刺論』

鍼經曰 陰蹻脈入眇屬目內眇 合於太陽陽蹻而上行⁶²⁾

【校勘】

『靈樞·脈度』에는 ‘陰蹻脈’이 ‘蹻脈’으로 되어 있으며, ‘眇’字가 ‘頰’字로 되어 있다.

【考察】

『素問·繆刺論』의 ‘邪客於足陽蹻之脈 令人目痛從內眇始’에 대한 註로 『靈樞·脈度』의 文章이다⁶³⁾. ‘頰’字를 ‘眇’字로 바꾸었는데 意味上 ‘眇’字가 맞다.

28. 『素問·繆刺論』

鍼經曰 齒痛不惡清飲 取足陽明 惡清飲 取手陽明⁶⁴⁾

【考察】

『素問·繆刺論』의 ‘足陽明中指爪甲上一痛 手大指次指爪甲上各一痛 立已 左取右 右取左’에 대한 註로 『靈樞·雜病』의 文章이다⁶⁵⁾.

III. 考察 및 結論

『靈樞』는 『九墟』, 『九卷』, 『九靈』 등과 더불어 『鍼經』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素問·調經論』에 나오는 文章 ‘帝曰 補瀉奈何 岐伯曰 神有餘則瀉其小絡之血 出血勿之深斥 無中其大經 神氣乃平’에 대하여 왕빙은 “鍼經曰 經脈爲裏 支而橫者爲絡 絡之別者爲孫”이라고 註하였는데, 『素問·三部九候論』에 나오는 文章 ‘血病身有痛者 治其經絡’에 대하여 “靈樞曰 經脈爲裏 支而

62)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80.

6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15.

64)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385.

6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151.

橫者爲絡 絡之別者爲孫”이라고 註하여, 동일한 文章에 대해 『素問·調經論』 註에서는 『鍼經』을 출전으로 하였고 『素問·三部九候論』에서는 『靈樞』를 출전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新校正에서는 『鍼經』이 『靈樞』인데 王氷이 註解할 당시 서적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이 달라졌다고 풀이하였다⁶⁶⁾. 그러나 王氷이 『鍼經』과 『靈樞』가 같은 서적임을 몰랐을 리가 없고, 新校正의 설명처럼 어느 서적이 온전하지 않았다면 王氷 또한 인용서적으로 참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王氷이 『素問』을 註解할 당시 『鍼經』과 『靈樞』가 동일한 서적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판본으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기록하였으리라 가정한다.

따라서 『素問』 王氷註에서 언급한 『鍼經』이 『靈樞』라는 가정아래 『鍼經』 引用文을 『靈樞』와 비교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鍼經』을 인용한 횟수를 27회로 조사하였으나⁶⁷⁾, 校勘과 考察을 통하여 王氷이 『素問』 註에서 『鍼經』을 言及한 것은 모두 32회⁶⁸⁾임을 알 수 있으며, 더하여 다음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王氷이 『素問』을 註解하면서 『鍼經』을 인용하는 가운데 32회 가운데 24회의 경우는 대부분 『靈樞』와 일치한다. 인용하는 문장이 비록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개 몇 글자를 바꾸거나 생략 또는 첨가하여 주해하였다.

둘째, 32회 가운데 3회의 경우는 『鍼經』 문장을 『靈樞』에서 찾아볼 수 없다.

셋째, 32회 가운데 3회의 경우는 類似한 文章이 있기는 하지만 『靈樞』의 文章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鍼解」편과 「氣穴論」의 上關, 下關二穴에 대한 註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32회 가운데 2회의 경우는 『素問』의 文章인데도 『鍼經』이라고 하였다.

모두 32회 가운데 대부분은 『鍼經』 문장이 『靈樞』 문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鍼經』과 『靈樞』 두 서적이 동일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根據가 된다. 그렇지만 3회의 경우는 『靈樞』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2회의 경우는 『素問』 문장을 『鍼經』이라 한 경우도 있었다.

『鍼經』 引用文과 『靈樞』 文章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王氷이 『素問』을 註解할 당시 참고로 했던 두 서적은 기존의 연구처럼 서로 다른 서적이 아니며, 그렇다고 동일한 서적이기도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王氷이 『素問』을 註解할 당시 『靈樞』라는 서적이 하나의 판본이 아니라 여러 종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1. 金基郁, 朴炫局. 『黃帝內經素問·七篇大論』 王氷 主本을 통한 運氣學說 關한 研究. 東國韓醫大研究所論文集. 4. 1995.
2. 金基郁, 朴炫局. 楊上善과 왕빙 注釋의 比較論的인 研究 (I). 대한한의학회지. 14(1). 2001.
3. 金基郁, 朴炫局. 楊上善과 왕빙 注釋을 통한 醫學理論의 比較論的인 研究 (II). 대한한의학회지. 14(2). 2001.
4. 金南一. 王氷의 생애와 그 의학사상의 특징. 韓國醫史學會誌. 15(1). 2002.
5. 金南一. 王氷의 陰陽五行理論의 易學的 활용에 대한 연구. 15(1). 2002.
6. 金重漢, 洪元植. 王氷에 對한 研究 -王氷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慶熙韓醫大論文集. 4(1). 1981.

66)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368-369.

67) 金重漢, 洪元植. 王氷에 對한 研究 -王氷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慶熙韓醫大論文集. 4(1). 1981. p. 173.

68) 本文의 12, 16, 17, 18에 2회씩 인용되어 있으므로 총 32회이다.

7. 眞柳誠. 『靈樞』は高麗政府所藏本『鍼經』に基づく. 韓國醫史學會誌. 16(2). 2003.
8. 이용범. 『靈樞』의 書誌學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2). 1999.
9.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1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